

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되자



(주)아이뱅크코리아/대표이사 이기민

이 글은 “일류의 조건”의 지은이(야마사키 다케야) 글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요사이 복잡한 사회생활에 조금 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.

세상은 참 편리해졌다. 상품의 질도 이만 저만 좋아진 게 아니다.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어딘가 “미쳐있다”고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 일이 참 많다.

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. 그 가운데 있다 보면 세상에서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. 조직이나 집단의 내부에서는 이익을 위해 아귀다툼을 한다.

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할 여유는 애당초 없는 듯하다. 사람들은 그런 이기적인 행동에 익숙해져서 비난만 할 뿐, 그것을 멈추게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다.

그러는 동안 “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”는 말처럼 어느덧 조금씩 자신이 비난하던 무리와 한편이 되어간다.

“원칙을 지키는”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면 안된다. 세상은 눈부신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.

그 속에서 한가지 신념을 관철하기란 힘겨운 일인지도 모른다. 하지만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나름의 신념을 지킬 수도 있지 않을까?

한가지 것을 오랫동안 해 나가기 위해서는 형식이 필요하다. 전통적인 “무예”나 “다도” 등은 모두 인사 범부터 시작해서 형식을 만들며 거기에 마음을 채워간다.

다도에서는 차를 마실 때 먼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셔도 좋다는 양해를 얻는다. 다음에 차를 만들어 준 이에게 감사하고 차 그 자체와 모든 만물에 감사를 한뒤 마신다.

이러한 마음 가짐으로 인생과 사업을 대하면 절대 어긋남이 없다. 세계화 시대에 진정한 일류 비즈니스맨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?

그것은 항상 사회 전체의 입장에 서서 “풍부한 상식”과 “예리한 통찰력”을 갖는 것이다. 이렇게 말하면 간단한 일 같으나 말처럼 쉽지는 않다.

옛 속담에 “급할 때 일수록 돌아가라”는 말처럼 경쟁이 치열해지고 변화가 급격할수록 잔재주 보다는 기본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할 것이다.